

# IMO 소식 & 국제해사동향



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 
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 
Maritime Safety Cooperation (KIMC)

01

## IMO 소식

### IMO, 마다가스카르 항만보안 담당자 교육 워크숍 개최



〈마다가스카르 항만보안 담당자 교육 워크숍, 출처: IMO〉

- IMO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에서 「마다가스카르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 워크숍」을 개최함
  - ▶ 이 행사에는 마다가스카르 항만보안책임자(PFSOs, Port Facility Security Officers) 및 마다가스카르 (APMF, Agence Portuaire Maritime Fluviale) 대표 등 총 24명이 참석함
  - ▶ 이번 교육은 해상인명안전협약(SOLAS) XI-2장 및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(ISPS Code)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항만시설 보안계획(PFSP)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지식과 기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

## IMO, 태평양 수색·구조 (PacSAR) 워크숍 및 태평양 여성해사인협회(PacWIMA) 콘퍼런스 개최

- IMO는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호주 케언즈에서 태평양 공동체(SPC, The Pacific Community)의 지원을 받아 호주정부와 공동으로 「태평양 수색·구조(PacSAR, Pacific Search and Rescue) 워크숍」 및 「태평양 여성해사인협회(PacWIMA, Pacific Women in Maritime Association) 콘퍼런스」를 동시 개최함
  - ▶ 이 행사에는 호주 및 태평양 국가 해상 수색·구조(SAR, Search and Rescue) 전문가 등 85명이 참석하여 태평양 SAR 우선순위와 여성의 해양산업 참여 촉진에 대해 논의함
- "태평양 지역의 SAR 재연결(Reconnect)"을 주제로 한 PacSAR 워크숍은 효율적인 SAR 대응, 조정 및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신기술 적용 모범사례를 개발하고, 산업 지도자들과 SAR 실무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기회를 제공함
  - ▶ IMO 아시아태평양지부장 B. Sitki Ustaoglu는 SAR 협약의 비준 및 가입에 대해 아태지역 국가들의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하고, 이와 관련한 IMO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함



〈PacSAR 워크숍, 출처: IMO〉



〈PacWIMA 콘퍼런스, 출처: IMO〉

- PacWIMA 콘퍼런스에서 IMO 여성해사인(WIM) 프로그램의 수석 Program Assistant(PA) Mariana Noceti는 SAR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방법과 계획에 대해 연설함
  - ▶ Mariana Noceti는 지난 30년간 IMO의 해상분야 여성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과 그 이점에 대해 강조하고, 지속 가능 및 다양하며 포괄적인 녹색 미래를 위한 창의적인 사고를 촉구함
  - ▶ PacWIMA 회원들은 2025~2030년 기간의 새로운 전략 개발을 위해 이 지역의 에너지 및 운송 부문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동의하고 초·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양 부문의 직업을 소개하는 Adopt A Ship Programme\*을 홍보하기로 함

\*Adopt A Ship Programme: 2006년 사이프러스 해운협회(CSC)와 사이프러스 해양환경 보호협회(CYMEPA)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운의 중요성 및 세계적인 영향에 대해 교육하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

## IMO 기타 공지

### [사무국 기타 공지]

- (사무국) 2024 IMO 양성평등상 공모 (CL.4699, '23.3.3.)
  - ▶ IMO 제128차 이사회('22.11.28.~12.2.)는 해양부문의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해 「IMO 양성평등상」 제정 승인
  - ▶ 후보 지명은 2023년 7월 17일까지이며, 수상은 2024년 세계 여성 해사인의 날('24.05.18.)에 진행될 예정

## 02

## 국제해사동향

## 미국, 8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해양환경보호 이니셔티브 발표

(출처 : U.S Department of State, '23.03.08.)

- 미국은 3월 2일부터 3일까지 파나마에서 개최된 '제8차 Our Ocean Conference(OOC)\*'에서 해양보호구역 조성 지원, 파트너 국가의 해양자원 확보, 기후변화에 따른 해안지역 환경 개선 등 해양을 보호하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총 8억 달러 규모를 투입하는 「글로벌 해양환경보호 이니셔티브」를 발표함

\*Our Ocean Conference: 기후변화, 청색경제, 지속가능한 어업, 해양오염방지와 해양보호구역(Marine Protected Area, MPA), 도서국과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건강한 해양의 중요성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정상과 각료, 국제기구 대표, 기업, 시민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하는 대표적인 해양분야 국제회의

## 〈글로벌 해양환경보호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〉

부문	예산(\$)	이니셔티브
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지구 기후 탄력성 개선	5,800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후 탄력성 및 적응 펠로우십 프로그램</li> <li>태평양 제도 청색경제의 기후 회복력 확보 프로그램</li> <li>미국 해상풍력발전 배치 목표 달성 조치</li> <li>파나마·피지 등의 녹색해운항로 추진 지원 등</li> </ul>
지속가능한 어업활동	61,000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남태평양참치조약(SPTT) 관련 경제지원협정 지원</li> <li>불법, 비보고, 비규제(IUU) 어업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</li> <li>해양생물다양성 보호 추진 등</li> </ul>
지속가능한 청색경제	6,400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순환경제 접근방식 지원</li> <li>해안 복원력, 블루카본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후 금융 지원</li> <li>해양 생태계 보존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활동 등</li> </ul>
해양보호구역 (MPA) 활동	800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가 및 지역 해양보호구역(MPA) 관리 개선</li> <li>산호초 보존 지원을 위한 보조금 및 협력 협정 체결 등</li> </ul>
해사보안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	1,800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글로벌 대테러 포럼 및 해사보안 강화 워크숍 개최</li> <li>해안경비대 역량구축 프로젝트 지원</li> <li>IUU 어업 근절 5개년 국가전략 발표 및 어업행동동맹 출범 등</li> </ul>
해양오염 방지 활동	5,600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양쓰레기 관리 및 혁신 펀드 지원</li> <li>FSO 유조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</li> <li>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프로젝트 지원</li> <li>유류 유출 대비·대응 역량 강화 등</li> </ul>
대서양 협력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서양 협력 조정관 임명</li> <li>대서양 협력 공동 성명 승인 및 협력 기회 모색</li> <li>대서양 협력을 위한 다자간 기구 설립 추진 등</li> </ul>

○ OCC는 동 이니셔티브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주목함

- ▶ 식량 안보를 유지하고 고용 기회를 촉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어업자원 확보
- ▶ 청색경제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발전 도모
- ▶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도구로 해양보호구역(MPA)의 중요성 강조
- ▶ 해사보안 강화를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국제협력 장려
- ▶ 해양오염을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복원하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 및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솔루션 마련



〈 제8차 OOC 행사, 출처: OOC 〉

## 스페인-네덜란드, 세계 최대 규모 그린암모니아 공급망 구축 MoU 체결

(출처 : SAFETY4SEA, '23.3.10.)

- 스페인의 글로벌 석유·가스 회사인 Cepsa社\*와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의 Ace Terminal社\*\*는 스페인의 'The Andalusian Green Hydrogen Valley'\*\*\*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그린암모니아를 로테르담 항만에 공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친환경 연료 공급망 구축협력 MoU를 체결함

\*Cepsa社 : 1929년 설립되었으며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사가 있음. 석유화학 회사로서 원료를 수입하여 에너지 연료 등 화학 제품을 개발·제조·유통하는 사업을 중점으로 수행

\*\*Ace Terminal社 : 로테르담 항만 서쪽 산업단지 일부에 수소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가 지정한 터미널 회사. 현재 제반 시설을 구축 중이며 2026년 상용화 예정

\*\*\*The Andalusian Green Hydrogen Valley : 최대 30만톤의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신규 플랜트 2기를 개발·설치하는 프로젝트로서, 일자리 1만개 창출 및 CO<sub>2</sub> 6백만톤 절감 효과 기대



- 스페인에서 생산된 그린암모니아를 선박을 통해 네덜란드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이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당 항로는 녹색항로(Green Corridor)\*로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함. 이를 통해 유럽 지역 친환경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

\*녹색 항로(Green Corridor)는 특정 해운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들이 온실가스 저배출/무배출 연료를 사용하여 운항하는 해당 항로를 지칭



## 영국 웨일스 정부, 켈트 해 최초의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허가

(출처 : The Maritime Executive, '23.3.13.)

- 영국 웨일스 정부는 최근 켈트 해 최초의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계획을 허가했음. 「Erebus 프로젝트」로 명명된 이 사업은 프랑스 에너지 기업 TotalEnergies와 프로젝트 개발 기업 Simply Blue Group의 합작회사인 Blue Gem Wind에서 담당하고 있으며, 2019년에 해당 지역의 해상풍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인허가 절차를 시작하였음

\*Erebus는 Bristol과 St. George's Channel(세인트조지 해협) 사이의 Pembrokeshire 남서쪽 해안에서 약 25마일 떨어진 지역임

- 웨일스 제1 장관인 Hon Mark Drakeford는 “Erebus 프로젝트는 웨일스와 켈트 해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함께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사업이 될 것이며, 이 프로젝트가 인허가 과정에서 영국 정부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”라고 언급함
- 이 프로젝트는 2025년 1월에 착공하여 2026년 12월에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며, 초기 목표는 100MW이지만 최종 목표는 켈트 해에서 4GW의 해상풍력 발전을 달성하는 것임. 이 프로젝트가 완공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것임. 부유식 플랫폼 개발은 전문기술업체인 Principle Power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, 우선적으로 14MW 풍력터빈 7~10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임



〈Erebus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. 출처: Blue Gem Wind〉